

‘순천형 긴급생활지원비’ 지자체 최초 투입

25억원 확보...선정 기준 확대 후 550여명 신청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지원

순천시가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를 지자체 최초로 투입한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최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와 행정자치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소요예산 25억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선정 기준을 대폭 확대해 코로나19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25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는 코로나19로 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5일부터 추진 중이다.

선정 기준은 당초 기준중위소득은 50% (4인 가구, 237만4천587원)에서 80% (4인 가구, 379만9천339원)로 재산은 1억1천800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금융·현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되고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며 2월 28일 현재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은 코로나19 사태 회복 시까지 한시 적용되며 신청은 신분증을 소지한 대상자 및 관계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서류 확인일로부터 8-10일 소요되며 지원 기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2회 이내로 나눠 지원된다.

현재까지 260여건에 550여 명이 신청했으며 매일 100여건의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김미자 순천시 사회복지과장은 “순천

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는 정부 정책이나 전남도 정책에 따라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 자동 확대 적용될 것이며 그에 따른 대상자 또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선정 기준 확대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에 따라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 선정 기준도 법적 기준보다 좀 더 폭 넓은 확대가 필요해 조정했다”며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 (061-749-6242·6184)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남정민기자



‘착한 임대료 운동’ SNS 릴레이 동참

전동평 영암군수, 소상공인에 힘 보태

전동평 영암군수가 지난 25일 SNS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감면에 동참하자는 취지의 릴레이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다수 기관 및 임대인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영암군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독려 외에 전동시장 사용료 50% 감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출금 이차보전사업 지속 실시, 영암사랑상품권 할인율 10% 확대 판매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동시장 및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고강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군청 구내식당을 3월에서 5월까지 운영 중단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매주 수요일 휴무 실시와 ‘나란히 나란히 도민안심식당’ 운영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으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기자

유두석 장성군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호소

다중이용시설 운영 자제 권고 집중 관리·모니터링 지속 점검

장성군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염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유두석 장성군수와 공직자, 사회단체 회원들이 최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쳤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감염병 통제 전략이다. 군은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집중 추진 중이다.

이날 캠페인은 다중이용시설을 찾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참여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소독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배부했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P·C방, 학원, 실내체육 및 유흥시설을 방문해 실내방역 상황을 확인하고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 요양병원·시설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장성군이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은 유두석 장성군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서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 <장성군 제공>

해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 내 20개소에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현수막을 걸어 주민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장성군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방위 홍보를 이어가는 한편, 중점 관

리대상 시설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오는 4월 5일까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야 하며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타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군도 방역과 감염 우려 시설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성=김문태기자

담양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다.

김성섭 담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위원의장으로 임명된 심의위원회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다.

건의 상정해 심의·의결, 학교폭력 심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소통과 공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정희 담양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을 학생들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규기자

신안군-(주)다도해, 투자협약 친환경 마른김 가공공장 건립

신안군은 26일 “최근 청사 회의실에서 어업회사법인 (주)다도해와 친환경 마른김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 신안에 국제 기준에 맞는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마른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신안군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다.

어업회사법인 (주)다도해 마른김 공장은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9천917㎡부지(3천여평)에 연면적 3천966㎡(1천200여평) 규모로 오는 11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압해도와 인근 산지에서 생산된 물김을 근거리에서 가공해 양질의 마른김을 생산할 계획이다. /신안=양훈기자

완도군, 코로나19 극복 지방재정 신속집행

3천839억 목표...주민 생활 밀접 소비·투자 부문 집중

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인건비, 사무 관리비, 소모성 경비 등)

와 투자(시설비, 자산취득비) 부문을 집중 집행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 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 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에 따라 선금을 계약 금액의 80%까지 최대한 지급하고 긴급 입찰제도, 계약관련 심사 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 집행을 적극 활용해 집

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시설사업 읍·면 재배정과 보조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지방보조금을 3월 말까지 교부하기로 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1분기 내에 구입을 완료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올해 신속집행 자체 목표를 정부가 권장한 목표를 5%보다 8% 이상 상향해 3천839억원으로 설정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윤보현기자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용지 분양

다양한 업종 기업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양시는 26일 “최근 태인동 국가산단 단지 내 마지막 개발지역인 명당3지구 조성공사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명당3지구는 43만7천998㎡의 부지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당3지구 조성공사가 준공됐다. 다양한 업종의 기업 유치를 위한 명당3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되는 필지 수 대비를 붙여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대상 용지 면적은 30만7천469㎡로 산업시설용지 30필지 28만3천403㎡, 지원시설용지 39필지 1만5천913㎡, 상

업용지 2필지 1천431㎡, 주차장시설용지 3필지 6천722㎡다.

지난해부터 선분양을 시작해 현재까지 분양된 용지는 총 28필지 5만155㎡로 산업용지 5필지, 지원용지 21필지, 상업용지 2필지이며 분양률은 필지 수 대비 37.8%다.

산업시설용지는 연료전지 발전업체, 운수업체 등에 16.7% 분양됐으며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명당3지구는 국도 2호선과 국도 59호선이 통과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월IC와 경남 하동IC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광양시는 금융권 대출 추천 (토지 매각금액 80%)과 지원시설용지 및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증개한 공인중개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0.6% (지원용지 2억원 기준)로 분양계약 당일 광양시 산단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입주나 분양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주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양사무소(070-8895-7988-7998)에 입주 신청하고 분양 계약을 광양시 산단과(061-797-3119-3116)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허선식기자

진도경찰, 다중이용시설 점검

진도경찰서는 26일 “진도군과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합동 점검은 진도경찰서 생활안전과와 진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 인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많은 인원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4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진도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도경찰은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위생상태 등 준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도=백세연기자

장흥군, 하수도 정비사업 본격 추진

3건 국비 200억 확보...신규사업 환경부 건의

장흥군이 지역 하천과 남해연안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하수도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하수도 분야 사업 3건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으며 계속사업을 포함한 총 7개 사업 532

억원을 바탕으로 23개 마을에 대해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군은 최근 13개 마을에 하수도를 보급하기 위해 2021년 하수도분야 신규사업 5건 국비 187억원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군은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에도 잔여 13개 마을에 대해 하수도 정비사업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5년까지 건의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도 보급률이 현재 69%에서 85%로 향상돼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흥=노형록기자

제54회 여수거북선축제 전격 취소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올해 여수거북선축제를 전격 취소했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로 54회 째를 맞는 여수거북선축제는 당초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고유제’ 행사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보존회의 축제 취소 결정에 공감한다”며 “축제 취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020년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중섭 제54회 여수거북선축제위원장은 “올해에는 이전과 다른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많은 추억을 선사하고자 했는데 매우 아쉽다”며 “올해의 아쉬움이 내년 거북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 e-모빌리티 전용 주행로 개통

사업비 9억원 들여 군도24호선 1.8km 설치

영광군은 26일 “지난 24일 영광스포티움에서 국도22호선을 연결하는 군도24호선 확보사업 구간에 e-모빌리티 주행로를 설치, 개통했다”고 밝혔다. <사진>

군도24호선(토우식당 앞-국도22호선 연결부)은 노폭이 협소하고 국도22호선 연결부까지의 선형이 굽어 평소 사고 발생이 많은 곳이다.

군은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 기존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고 도로 양쪽에 e-모빌리티 주행로(폭1.75m) 1.8km를 설치했다. 또한 e-모빌리티만이 주행 가능한 전용도로와 차량이 함께 주행할 수 있는 우선도로를 추가 개통했다.

군은 이달까지 스포티움 내 중앙로에 주행로를 추가 설치해 전용도로와 연결해 향후 스포츠 행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e-모빌리티 시승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 도로는 e-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의 밑거름



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내 관광지 및 시내도로 등에 설치되는 e-모빌리티 주행로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영광군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의 지속적인 추진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기차 개방형 플랫폼 개발,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e-모빌리티 인제 양성사업 추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e-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쳐 균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기자